

# 《라》계렬토의 문법적의미와 의미적특성

량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짜여있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다 나타낼수 있는 조선어의 우수성은 문법적형태인 토가 발달한데 중요한 리유가 있다.

조선어에서는 일부 토들이 하나의 계렬토를 이루면서 다양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라》계렬토를 선정하고 이 계렬토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와 그 의미적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조선어에서 종결토 《라》는 앞뒤에 다른 많은 토들이 결합되어 다양하고 풍부한 《라》계렬토를 이루고있으며 매 계렬토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라》계렬토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라》계렬토가운데서 일부 토들은 어떤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것이다.

《라》계렬토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체언의 용언형에 붙는다. 이때 어떤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계렬토를 이루는 매 토들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라》계렬토라는 하나의 체계에 매여있어도 토의 의미가 품사선택에 따라 공고한 의미로 쓰일수도 있고 공고하지 못한 의미로 쓰일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고한 의미로 쓰인다는것은 합성토에 가까운 의미로 쓰인다는것이고 공고하지 못한 의미로 쓰인다는것은 결합토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맺음토 《라》뒤에 이음토와 다른 맺음토들이 결합되어 《라》계렬토를 이루는 토 《라고, 라구, 라니, 라니까, 라네, 라지, 란다, 라며, 라면, 라면서, 라면요, 라서》 등이 있다.

맺음토 《라》와 이음토 《고》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토 《라고》는 접속토로 쓰이는 경우에 용언이나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뒤에 오는 단어들과 이어주는 뜻을 나타낸다.

례: ① 대성중학 축구선수시절 경기때마다 자기에게 공을 빨리 보내라고 손짓하곤 하던 버릇이 그대로 습관으로 굳어졌다던가?

② 주인어른은 그의 나이며 성과 이름을 물어보고나서 너는 성도 마씨겠다, 말하고 인연이 깊어질 팔자이니 마구간에 가서 일하라고 분부하였다.

③ 구석진 구역의 이름없던 이 학교에서 영화배우가 배출된다면 그것은 우리 학교의 영예이고 구역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 절절한 말에 윤희는 그만 마음이 움직이고말았다.

④ 《검손이 아니라 사실상 나한테는 회상이라고 할만 한 이야기거리가 없네.》로영무가 입을 열었다.

⑤ 화전도 밭이라고 봄이 찾아왔다.

위의 실례에서 ①과 ②는 토 《라고》가 용언에 붙어서 토 《라》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

내면서 토 《고》와 함께 어떤 사실에 대한 전달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③과 ④, ⑤에서는 토 《라고》가 체언의 용언형과 결합되어 시키거나 추기는 뜻으로서 토 《라》의 의미는 거의 없어지고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와 함께 해당 문장에 따르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이로부터 《라》계렬토인 토 《라고》는 동사나 체언의 용언형뒤에 쓰이는 경우 말을 인용하는 의미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토 《라》의 쓰임은 같지 않다.

맺음토 《라》와 《나》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토 《란다》는 체언의 용언형과 동사의 뒤에서 쓰이며 시간토뒤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이 토는 《해라》말차림으로 해당 사실을 지정하여 알리는데 쓰이지만 체언의 용언형뒤에서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여 자랑조로 알리는 뜻을 나타낸다.

례: ① 기어이 한번은 피여보려고 눈서리를 헤쳐온 꽃이란다. 신도 꽃신이다. 어머니가 수를 놓은 꽃신이란다.

② 《영숙아, 너는 우리 조선녀성가운데서 첫 유격대원이란다. 언제나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서가는 네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그뒤에 따라선 술한 녀성들이 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고 밋어서게 된단다. …》

③ 《백산학교에 달 종이란다. 한달전에 아버지가 강제유기점에 주문하셨던 모양이다.》

④ 《더 지체하지 말고 여기를 빨리 떠나란다.》

⑤ 《감옥의가 말하는데 니시자와와의 대결과정에 전사했다는거다. 짝 움켜쥔 주먹을 겨우 펴보니 땡땡 굳어진 찢판이가 한줌 쥐여져있더란다. 김혁동무의 최후는 극비에 붙여져서 간수 몇사람과 감옥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단다.》

우의 실례 ①부터 ③까지는 토 《란다》가 체언에 붙은 경우이고 ④와 ⑤는 동사에 붙은 경우이다. 토 《란다》가 어느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같지 않다. 체언의 용언형뒤에 붙으면 어떤 사실을 자랑조로 알리는 뜻을 나타내고있지만 동사뒤에 붙는 경우에는 두 토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토 《란다》앞에 《더》가 와서 토 《더란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체언의 용언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있다.

《라》계렬토에서 맺음토 《라》와 《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토 《라지》는 동사나 일부 형용사의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에 붙어서 해당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날테면 일어나라는 식으로 그 실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개의치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토 《라지》는 때로 체언에 붙어서 쓰이기도 한다.

례: ① 《허 참… 그 사람들이 승인은 받았다고? 후과를 책임지겠으면 마음대로 세우라지. 동무는 일체 빠치지 말고 올라오오.》

② 《귀 같은거야 얼겠으면 얼라지. 마음만 얼지 않으면 난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 … 창실이만 곁에 있으면 귀두 마음두 얼지 않아.》

③ 《듣겠으면 들으라지. 남의 물건이길 하나, 제 물건인데. …》

④ 《차에서 내려 인술교원한테 물으니 〈배움의 천리길〉행군에 참가한 학생들이라지요.》

⑤ 《지금 소대장이라지요?… 내 인살 전해주세요. 훈련에서 모범이 되길 바란다구요.》

우의 실례 ④와 ⑤에서 토 《라지》는 체언과 결합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쓰이었으며 그뒤에 입말체에서 쓰이는 《요》가 더 붙어서 친근감을 보충해주고있다. 뿐만

아니라 로 《라지》는 동사에 붙는 경우에 로 《라》의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여기에 말하는 사람의 일정한 태도를 더 보충하여 나타내고있으며 체언의 용언형뒤에 붙는 경우에는 반대로 매 로들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라》계렬토에서 맺음토 《라》와 《나》가 결합된 로 《라나》는 동사와 일부 형용사뒤에서 《반말》의 말차림으로 명령이나 어떤 사실을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뜻을 나타낸다.

례: 《이젠 늙었다고 창고나 지키라나. 난 아직 그럴수 없어.》

《그런들 뛰라나요. 자동차가 있는데 따라가면 되는거죠.》

《난 그놈이... 팽장한 놈인줄 알구... 내 모자까지 썩워주면서... 난 귀가 다 얼면서 왔는데 글썽 그 개자식이... 무슨 후방근무장교라나요!!...》

우의 실례들에서 로 《라나》는 동사뒤에 쓰이거나 체언의 용언형뒤에 쓰이는 경우 본래의 의미보다 합성토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있다.

《라》계렬토인 맺음토 《라》와 이음토 《면》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로 《라면》은 동사뒤에 붙는 경우에는 두 로의 의미를 다 나타내면서 쓰이지만 체언의 용언형뒤에 붙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정함을 나타낸다.

례: ① 현씨는 노랑수염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팔게 아니라면 왜 어물전에 내놓았을가?...

② 찬우물들로 피난가서 소도, 변변한 농쟁기도 없이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파종하러 나가자면 지게 지고 산으로 오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면 꼴망태를 둘러메고 들로 나가군 하던 자기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타서 솟등걸이 되었다.

③ 사실상 몇명의 정찰병들을 이끈 기습전투라면 아무리 무덤굴같은 어둠속일지언정 숨결로 전달되는 각이한 구령이며 순간의 결심을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④ 리현은 총진 사람이라면 다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황당한 궤변으로 그것을 보충했다.

⑤ 정찰이라면 의례히 격술, 유도 등의 장기를 가지고있으리라고 믿기때문일 것이다.

《라》계렬토에서 맺음토 《라》와 이음토 《며》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로 《라며》는 동사나 체언의 용언형뒤에서 로 《라》와 《며》가 나타내는 의미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쓰이기도 하지만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서는 어떤 사실을 되묻거나 빈정거리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례: ① 논판은 질적하였는데 벼가을을 하던 사람들중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몸집이 뚱뚱한 사람이 포전길로 나와 자기가 군당책임비서라며 인사를 올리는것이였다.

② 《만나지 않았습시다. 식료공장 지배인으로 있는 그 동무의 사촌누이가 그를 도시로 옮기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간청하는걸 원칙만 원칙이라며 저는... 저는... 그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③ 그는 나보고 혼자 가라며 자기는 후에 따라오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떨어졌다.

④ 《밤새 자지 않고 무엇인가 혼자 하더니..., 그래 이게 옥이 너의 숨씨라며?》

우의 실례 ①부터 ③에서 로 《라며》는 로 《라》와 《며》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

고있지만 ④에서는 체언의 용언형에 붙어서 어떤 사실을 되묻거나 빈정거리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이와 같이 《라》계렬토들은 동사뒤에서 토 《라》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지만 체언의 용언형뒤에서는 각이한 의미 혹은 품사에 관계없이 합성적의미로 쓰인다.

그것은 둘째로, 《라》계렬토의 대부분이 결합된 토들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다는것이다.

토 《더》와 《라》, 《니다》가 결합되어 하나의 《라》계렬토를 이룬 《더랍니다》는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서 쓰이어 이미 자기가 보거나 들었던것을 회상하여 서술하면서 해당 사실을 정중히 알리는 뜻을 나타낸다.

례: 《한번 가서 손을 맞잡자구 얘기했대요. 가만히 앉아서 망하겠나, 우리도 활동하자, 최근배같은것들을 끌어당기자 하구 바람을 불어넣었대요. 그런데 그 정의 춘령감이 청산당할가봐 떨면서도 자기네는 아들이 로동당원이구 전선에 나가서 잘 싸웠는데 공화국에서 봐줄지도 모른다구 하더랍니다.》

토 《더》, 《라》, 《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라》계렬토 《더라도》도 용언에서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 붙으면서 《더》, 《라》, 《오》의 의미들을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례: 《그래 다시 차에 올랐는데 바로 현욱이 당자가 그 눈치를 채고 절대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호송하는 놈에게 동무들이 자기를 탈취하려 올수 있으니 호송인원을 증강하여 든든히 경비를 세우라고 말하더라오.》

토 《더》, 《라》, 《니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라》계렬토 《더란다》는 동사에 붙어서 시간토와 함께 쓰이면서 매 토들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례: 《지금 우리 나라는 왜놈들에게 빼앗긴지 열일곱해가 되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 나라는 왜놈들에게 강점되었더라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망국노의 처지로 되어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처럼 《라》계렬토는 많은 토결합을 이루며 그 의미도 각이하게 쓰이고있다.

《라》계렬토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를 종합하여보면 일련의 특성이 있다.

첫째로, 《라》계렬토는 어떤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고있다는것이다.

《려, 기, 더》와 같은 계렬토들의 의미는 련관되는 품사가 일정하게 고정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미가 품사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라》계렬토에 속하는 토들은 동사나 체언의 용언형뒤에 쓰이는것으로 하여 어느 품사에 붙는가에 따라 같은 계렬토들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에 붙는 경우에는 토 《라》의 의미가 대부분 그대로 쓰이지만 체언의 용언형뒤에 쓰이는 경우에는 토 《라》의 본래의 의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라》계렬토들은 이와 반대의 경우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계렬토들에 없는 《라》계렬토의 고유한 의미적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둘째로, 《라》계렬토는 다른 계렬토들과 달리 2~3개의 토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계렬토를 이루면서 쓰이는 경우에 그 의미가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쓰이고있다는것이다.

《라》계렬토에 속하는 토들은 2~3개의 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는것이 기본이고 이외에 4개이상의 토들로 결합된 《어서라기보다, 시더라거던요, 더라면야, 이라더라도, 리라던가요》와 같은 토들도 적지 않다.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라》계렬토들은 토 《라》의 의미는 물론 결합되는 다른 토

들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있으므로 언어실천에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라》계렬토는 대부분이 토결합을 이루면서 매 토들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문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풍부하고 세밀하게 나타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셋째로, 《라》계렬토는 그 수가 많은데 비하여 완전히 합성토로 전환된 토들이 없고 다의적의미가운데서 일부가 합성적의미를 나타내면서 쓰이고있다는것이다.

실례로 《라》계렬토 《라며》의 다의적의미를 놓고볼 때 기본적으로는 두 토의 의미를 다 나타내면서 쓰이며 일부 경우 두 토의 결합적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부류의 토들이 가지는 다의적의미가운데서 일부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여 그 토를 합성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계렬토들에는 합성토로 굳어진 토들도 있고 결합토로 쓰이는 토들도 있지만 《라》계렬토에는 합성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토들이 거의 없다. 즉 《라》계렬토에서 해당 토가 가지는 다의적의미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토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쓰일뿐 토자체가 하나의 합성토로 된것은 없다.

규정토로 이루어진 계렬토와 바꿈토로 이루어진 계렬토들가운데서 거의 많은 토들이 오늘날 하나의 합성토로 굳어져 쓰이고있다. 이에 비해볼 때 《라》계렬토는 매 토들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면서 쓰이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라》계렬토를 이루는 매 토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결합적측면이 다른 계렬토들보다 약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라》계렬토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져 다양하고 활발하게 쓰일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어에서 《라》계렬토들은 다른 계렬토들과 다른 자기의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언어실천에서 아주 활발하게 세분화된 의미로 쓰이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조선어의 토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조선어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필자는 중국박사원생임)